

농촌청소년의 직업의사결정 분석

이채식

박사후연구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A Study on Vocational Decision Making of Rural Youth

Chae Shik Lee

Post-doc,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Summar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differences of decision making in farming settlement and to analyze attributes for vocational decision making of rural youth.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To analyze vocational decision making of rural youth,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6 rural youth by stratified random sampling. The SPSSWIN/ver10 was used for analyzing data with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factor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Rural youth decided to become farmers at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age for farming succession and eco-friendly life orientation. 2) Youth parents were the major source of influence on their rural youth to settle in farming. 3) Rural youth with high economic status, upper academic achievement and university graduation showed higher autonomous decision making and lower heteronomous decision making. 4) Rural youth with low economic status and low academic achievement showed unstable vocational decision making. 5) The study suggested that rural youth with unstable decision making should get more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supports.

Key Words : Vocational Decision Making, Rural Youth, Farming Settlement

I. 서 론

1960년대 이후의 도시화 및 공업화를 거치는 동안 농촌사회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인구유출이 이루어졌다. 농촌사회의 청소년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이동을 통해 농촌사회는 급속히 노령화와 여성화가 진전되었다. 농촌공동체의 유지와 농업생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1980년대부터 후계농업인력 육성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농업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

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력 육성에 연구들은 주로 농업경영인의 농업종사실태나 개선을 위한 내용(김경덕, 1998; 이용환 외, 2000; 정철영, 1999) 이거나 농촌지역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이용환·서우석, 1995; 서우석, 2002; 조완규·송해균·이용환, 1984)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지원과 연구분야는 인간의 전 생애과정을 통한 진로발달의 관점에서(Tolbert, 1980; Osipow, 1990) 강조하는 후기청소년기의 중요성과 직업결정과정을 놓치고 있다. 진로발달에서 20대는 이전까지의 잠정적이며 준비단계를 넘

※ 본 연구는 2005년도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

어선 현실단계에서 구체적 결정을 통해 직업세계에 본격적으로 생활하는 한편 직업전문화를 이루어가는 시기이다(Ginzbert et al, 1951; Miller, Form, 1951; Hall, Nougaim, 1968).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농촌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라난 20대의 농촌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농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농촌청소년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전략 개발 및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농촌청소년이 자신들의 직업세계에 있어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결심이나 동기 및 직업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한 20대의 농촌 청소년은 현재의 주요한 농업인이며 미래의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농촌 청소년들의 농업에 대한 직업결정과 안정적 적응은 청소년기 이후의 진로발달 및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revitalizing)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발달 및 지역사회 개발의 측면에서 20대의 청소년들의 직업으로서 농업선택과 직업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촌 청소년들의 농업선택 결정 및 동기가 어떠하며,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농촌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직업발달

진로교육은 개인이 보다 만족스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 계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이다(Bailey & Stadt, 1973) 인간의 진로발달은 전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20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의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Ginzbert et al(1951)에 있어 20대는 이전까지의 환상적이며 잠정적인 단계를 넘어서 현실단계로 진로에 대한 구체적 결정과 전문화를 이루는 시기이다. Miller & Form(1951)은 20대를 일의 수행기(trial work period)로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직업에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는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Hall & Nougaim(1968)의 논의에서는 20대는 예비적 단계를 지나 확립(establishment)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Super(1969)은 직업발달에 있어 20대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의 시행기이자 확립기의 시행기와 안정기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의 생애에 있어 20대는 본격적인 직업세계에 진입하여 적응하고 발달하는 시기이다. 한편, 발달이론에 기초한 20대의 발달적 특성을 보면 현실적 욕구와 자신의 욕구 간에 타협이 성립되고 실제적인 직업을 선택하여 종사하게 된다(Ginzberg et al. 1951). Havinghurst(1964)는 10대 중반이후부터 2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직업구조 속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여 준비하는 시기로 특징짓고 있다. 이 시기에는 직업선택의 기초로 일을 경험하는 한편, 부모로부터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이라는 발달과업이 제시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산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취업을 위한 기술의 습득과 승진을 통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20대중반 이후는 안정적으로 생산적 사회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Erikson(1965)의 논의에서도 20대는 친밀감 형성을 통해 관계와 친교를 발전시키는 한편 직업세계에 있어 한 사람의 생산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Super(1969)는 20대 초반까지 직업탐색의 정도에 따라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분화되어 있지만 20대 중반을 거치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의 분야를 발견하고 생활의 터전을 확보하려는 노력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20대 청소년은 다양한 직업구조 속에서 자신의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하여 일을 경험하는 한편 직업에 관한 가치관과 윤리를 발달시키게 된다(유창렬, 1990).

Sidney(1971)의 생애교육에서 제시한 청소년

의 직업선택과 진로발달단계를 농촌 청소년의 영농정착발달단계에 적용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최민호·김성수, 1993).

첫째, 진로인식(career awareness)은 일의 세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초등학교 6~11세에 해당하며 다양한 직업세계를 소개하고 일(work)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자신과 직업세계를 연상하는 경험을 갖는다. 둘째, 진로탐색(career exploration)은 일의 세계에 대한 흥미유발과 예비적인 탐색과 경험이 이루어지며 중학교 12~15세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해 영농과 관련된 과제활동을 통해 흥미와 능력, 적성을 개발한다. 진로준비(career preparation)는 청소년들이 한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며 고등학교 16~18세에 이루어진다. 직업군에 대한 고차적인 탐색과 전분분야에 관한 교육과 훈련으로 영농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사회적 및 직업적 가치를 인식하여 농업인으로서의 자아를 확립시킨다. 진로전문화(career specialization)는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건전한 인간관계의 조성능력을 갖게 되며 주로 대학과정 이상의 청소년들이 해당된다.

2. 직업의사결정 귀인(Attribute for career decision making)

직업발달에 있어 무엇보다 “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진로를 택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던지게 된다(이재창, 1986).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직업의사 결정은 의사결정모형을 직업행동에 적용한 것으로, 사람들이 자신과 직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조직하고, 실행을 위한 대안들을 숙고하여, 실행하기 위한 몰입(commitment)을 하는 복잡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Jepsen, 1984). Tideman, O'Hara(1963)는 직업의사 결정은 사람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문화와 통합을 통해서 직업적 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사람은 자신에 처한 상황에서 문제를 직면하거나 욕구를 경험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의사 결정과정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사람들이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에 있어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규칙을 개발하여 적용하기도 하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Jespens, Dilley, 1974; Mitchell,

<표 1> 청소년의 영농정착 발달단계와 지도활동

발달단계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전문
연령	6~11	12~15	16~18	19~29
영농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인지 · 흥미유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흥미내면화 · 영농가치 부여 · 영농학습 · 영농결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부분정착 · 영농 완전정착 · 영농 유지개선단계
영농정착지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직업관계 · 일의 가치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와 직업세계 · 동식물기르기 · 모범농장 방문 · 생명의 신비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과제활동 · 가축 과제활동 · 영농과 사회발전 · 농기계 실습 · 농업공작 · 현장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수지도 · 개별지도 · 부자협약농업지도 · 외국 연수 · 집단활동

출처: 최민호·김성수, 1993, 농촌지도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p288

Krumboltz, 1984; Tiedman, O'Hara, 1962; Hilton, 1962, Vroom, 1964; Harren, 1997; 고형자, 1992, 재인용).

20대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이나 직업에 대한 특정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이 유용할 것이다. 귀인이론은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후 발달심리학자들도 관심을 두었다. 귀인(attribution)은 외부행동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내면상태를 추론하는 것으로 (Kelley, 1973), 사람들이 인과적 추론에 사용하는 정보와 정보사용의 규칙 등의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Freedman (1981)은 귀인(attribution)은 관찰자가 인간의 외부 행동에 근거로써 자기 자신이나 행위자의 내부행태에 대해 만드는 추론(inference)이라고 하였다.

귀인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논리적 정보처리 과정을 강조하는 인지적 측면과 정보에 관계없이 성공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한 덕분으로 돌리는 한편 실패에 대해 정보의 어려움 또는 나쁜 운에 돌리는 정의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Weiner(1971)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지각은 기본적으로 인과적 귀인이 이루어지는 특정상황적 변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과거행동결과와 현재결과와의 일치성이 높을 경우에는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한 원인을 능력이나 과제 난이성 등의 안정요인에, 과거와 현재의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력이나 운 등의 불안적 요인에 귀인시키고 있다. 또한 다른 이들과 자신의 결과가 크게 다를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등의 내적 요인에, 다른 이들과 자신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제 난이성이나 행운 등 외적요인에 귀인시키게 된다. Weiner의 모델은 특정한 인과적 개념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Graham, 1991). 사람은 그들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나 결과를 설명하기를 원한다. 인과적 과정으로부터 추론되는 설

명이나 귀인은 직접적으로 인지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귀인은 개인적 동기나 미래의 일에 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Perry, Hechter, Mmenec, Weinberg, 1993). Weiner(1986)은 인과적 소재, 안정성, 통제가능성 등 3가지 영역의 귀인으로 유형화하였다. 인과적 소재(locus of causality)는 개인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원인의 두는 것이다. 능력이나 태도 혹은 노력은 사람마다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내부적인 반면 과제의 어려움이나 행운 등은 결과의 외부적이거나 환경적 요인이 된다. 안정성은 시간의 경과속에서 지속적이거나(constant) 변화하는(varying) 것으로 구분된다.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개인의 태도라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으나 노력이나 분위기 등은 개인들의 노력정도와 기분에 따라 상황마다 변화하기에 불안정하다. 통제성은 개인적 책임성이나 스스로의 의지가 주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노력은 개인이 노력정도에 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통제적인 반면 적성이나 행운은 개인의 통제를 벗어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Graham, 1991).

Weiner에 의하면 모든 귀인은 소재*안정성*통제성으로 구성되는 8가지 영역으로 유형화된다. 내부적 - 안정적 - 통제적인 유형에서 직업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은 의사 결정이 그들 자신이 통제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지속적인 내적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 반면에 외부적 - 불안정 - 통제 불가능한 귀인유형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은 의사 결정이 개인의 통제나 벗어났으며 지속적이지 못하고 자주 변화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은 행운이나 기회에 의한 진로관련 결정을 선호한다.(Luzzo, Smith, 1998) 사람에게 있어 진로선택은 중요한 사건이며, 그들의 삶에 있어 진로에 관한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귀인적 분석에 관심을 두게 된다. 사람은 자신의 내린 다양한 의사결정을 성찰함을 통해 직업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자신의 귀인유형을 개발할 수 있다. 통제하기 힘들며, 외부적이며,

비관적 귀인형태로 보여지는 안정적 요인들에 의한 진로결정은 효과적인 직업발달의 장애물이 된다(Luzzo, Jenkin-Smith, 1996; Nauta, Epperson, 1995).

3. 선행연구 고찰

농촌 청소년들의 직업으로서 농업결정에 관한 연구는 영농종사결정의 이유와 시기에 관한 연구(공병문·김형선·김후, 1985; 최승희·이무근, 1986; 조완규·송해균·이용환, 1984; 정성봉·송해균, 1989; 최원개, 1986; 최민호, 1981; 김향숙, 2003)와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 연구(서우석·이용환, 1995; 유창열, 1984; 조완규·송해균·이용환, 1984; 최승희·이무근, 1996)로 구분할 수 있다.

공병문·김형선·김후(1985)은 농업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통해 농업계고등학교의 입학동기로 직업적 준비와 자신의 능력을 고려한 선택이 많음을 밝혔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농업종사에 있어 독립하여 스스로 농장경영을 원하는 학생이 50% 이상임을 밝혔다. 최승희·이무근(1986)은 영농지도자 및 영농후계자를 대상으로 영농의식을 조사하였는데, 영농종사의 동기로 가업계승(44.9%)과 직업적 전망이(23.8%) 높게 나타났다. 정성봉·송해균(1989)은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자영자를 대상으로 영농정착과 관련변인을 연구하였다.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30~40대들은 농업종사의 결정이유로 부모의 농장과 토지를 물려받을 수 있어서(가업계승)가 가장 많았으며, 영농종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높았으며, 부모 및 교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원개(1986)는 농업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영농정착의 결심이유가 직업적성이 가장 많았으며, 축산분야에서 직업적성을 고려한 농업선택이 많았다고 밝혔다. 조완규·송해균·이용환(1984)은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과학생의 진로결정을 연구

하면서, 고등학생들이 직업으로서 영농종사를 하려는 이유는 직업적 전망과 직업적성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청소년들의 직업결정에 관한 요인으로 Jasper(1971)은 흥미, 개인의 능력, 교육과 훈련경험, 수입, 일의 수행 장소, 발전가능성, 배우자와 가족과의 연계임을 밝혔고, London(1973)은 흥미, 능력, 부모의 의견, 또래집단의 영향, 상승을 위한 욕구, 교육에 대한 태도, 빠른 취업의 기회, 나이, 성, 성격, 경제적인 보상 등을 들었으며, Baily(1973)은 개인과 사회적 용인으로 하위문화, 성, 연령, 심리적 요인으로 흥미(interest), 지적능력(mental ability), 가치관(value) 등이었다. 이정근(1980)은 개인의 능력, 직업적 흥미, 성격, 학력, 가정적 배경, 경제적 상태, 신체조건, 학교 등이라 하였다. 김광진(1972)은 자립영농관련 요인으로 동기, 영농에 대한 태도, 영농의 유리점, 영농형태, 경지면적 등을 제시하였으며, 강성봉(1973)은 농고생들은 태도, 개인의 신체적 건강, 소유경지면적, 부모의 학력, 직업에 대한 압력, 가계책임자의 직업 등이 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이용환(1979)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직업적 기대, 농업과목의 선호도, 평균성적, 지역요인 순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무근(1977)은 농고생들의 직업기대 영향요인으로 사회, 영농거주지, 지역사회적 배경, 영농의 사회적 지위, 가족구조, 교육시설, 부모, 경지규모, 재정적 문제 등의 경제적 요인, 흥미, 가치관, 학업성취도와 학업능력의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주로 지역적, 학교환경요인, 개인과 가정환경 요인, 농업특성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hipps(1957)은 연령, 영농경험, 영농자금으로, 이영대(1981)은 개인의 농업에 대한 흥미, 적성, 신념, 부모가 자식의 영농에 관한 이해, 영농경험으로 보았으며, 유창열(1982)은 개인적 요인, 교육관계 요인, 가정적 요인, 영농배경적 요인으로 보았다.

III. 연 구 방 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20대의 농촌청소년 모집단으로 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농가에 있어 20대 청소년의 취업자 수는 225,000명이었다(통계청, 2003).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전국의 시·군 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추출된 지역에서 각각 10명의 20대의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시·군 지역 농촌지도직공무원의 협조를 통해 이들이 추천한 조사원이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설문조사에 앞서 직접 해당시군을 방문한 조사원교육이나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의 조사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6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총 200개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모두 회수되었다. 그러나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매를 제외한 총 196매였다.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농촌청소년의 직업으로서 농업선택 결정 및 직업의사 결정을 밝히기 위하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설문문항을 마련한 후 전문가로부터 안면타당도와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검증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농촌청소년들의 직업으로서 농업결정을 밝히고자 직업으로서 농업선택의 결심이유, 농업종사 결정시기, 직업결정의 영향을 준 사람, 농업결정시 부모님의 의견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농촌 청소년의 직업의사 결정은 Luzzo & Jenkins-Smith(1998)이 개발한 AACDM(Assessment of attribution for career decision-making)의 도구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1차 설문문항을 마련한 후 전문가로부터의 안면타당도 검사 및 40명의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Luzzo & Jenkins-Smith(1998)는 청소년의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절차에 관한 개인의 개인적 유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AACDM은 통제가능성, 인과성, 안정성 등 3개영역의 9개 문항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의사 결정 도구의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 도구의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KMO(Kaiser-Meyer-Olkin) 검증과 단위행렬 검증에 관한 Bartlett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KMO 값은 .655로 일반적으로 요인 분석에 적합한 기준인 .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을 위한 Bartlett 값은 266.082, 자유도는 2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 직업의사 결정의 요인 추출의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법의 Kaiser 정규화가 있는 Varimax법에 의해 8번 반복회전이 실시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은 Luzzo & Jenkins-Smith(1998)의 3가지 요인 구성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통제가능성의 요인에 스스로 결정의 문항과 인과성 요인의 타인에 의한 결정문항이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각기 요인이 있는 문항들과 요인 추출이 되었다. 연구자는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청소년의 직업의사 결정의 개인으로서 자율적 직업결정, 타율적 직업결정, 유동성 직업결정 등으로 명명하였다. 자율적 직업결정은 스스로의 능력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결정이 포함되었으며, 타율적 직업 결정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결정이 포함되었다. 유동성 직업 결정은 직업 결정이 이전과는 다르게 계속 변화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빈도 및 백분율, 교차분석, t-분석, ANOVA와 요인 분석이 적용되었다. 농촌 청소년과 성인의 일반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적용하였으며, 농촌 청소년과 성인의 농업선택 결정의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농촌 청소년의 직업의사 결정 귀인간의 차이분석을 위하여 t-분석, ANOVA를 실시하였다. 직업의사 결정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 분석을 하였다.

IV. 결 과 분 석

1. 응답자의 일반현황

<표 2>에서 같이, 응답자의 일반현황을 보면, 26세 이상인 청소년은 51.0%, 25세까지의 청소년이 49%였다. 기혼한 청소년이 20.5%인 반면 미혼인 청소년은 79.5%였으며, 전문대졸의 청소년이 43.4%로 가장 많았다. 농촌 청소년의 영농 기간은 3년까지와 4~5년까지가 38.2%였으며 7년 이상은 23.6%였다. 주요작목으로는 작물을 재배하는 청소년 40%,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청소년 30.3%, 과수/채소/화훼를 재배하는 청소년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구 분		빈도	%	구분		빈도	%
연령	26세 이상	100	51.0	영농규모	중농 이상	133	68.6
	25세 이하	93	49.0		소농	61	31.4
학력	고졸	67	34.2	영농기간	3년까지	73	38.2
	전문대	85	43.4		6년까지	73	38.2
	대학	44	22.4		7년 이상	45	23.6
결혼	미혼	155	79.5	주요작목	작물	78	40.0
	결혼	40	20.5		과원채	58	29.7
					축산	59	30.3

<표 3> 농촌 청소년의 직업으로서 농업선택 이유

	구 분	가입계승	직업전망	적성고려	자연 친화적 삶	전체
연령	26세 이상	38.0	9.0	21.0	32.0	100.0(100)
	25세 이하	39.1	26.1	15.2	19.6	100.0(92)
결혼유무	미혼	37.7	19.5	15.6	27.3	100.0(154)
	기혼	42.5	7.5	30.0	20.0	100.0(40)
학력	고졸	46.3	0.0	23.9	29.9	100.0(67)
	초대졸	39.3	26.2	14.3	20.2	100.0(84)
	대학	25.0	25.0	18.2	31.8	100.0(44)
경제수준	상위	40.0	22.5	12.5	25.0	100.0(40)
	중위	38.0	15.3	21.2	25.5	100.0(137)
	하위	38.9	16.7	11.1	33.3	100.0(18)
영농규모	중농 이상	39.4	18.9	21.2	20.5	100.0(132)
	소농	37.7	13.1	11.5	37.7	100.0(61)
영농기간	3년까지	36.1	19.4	15.3	29.2	100.0(72)
	6년까지	43.8	19.2	16.4	20.5	100.0(73)
	7년 이상	33.3	11.1	24.4	31.1	100.0(45)
주요작물	작물	33.3	15.4	19.2	32.1	100.0(78)
	과원채	40.4	10.5	21.1	28.1	100.0(57)
	축산	44.1	25.4	13.6	16.9	100.0(59)

29.7%였다.

2. 농촌 청소년의 직업으로서 농업선택 이유

26세 이상의 농촌 청소년은 농업직업 선택에 있어 가업계승(38.0%)과 자연친화적 삶(32.0%)을 고려하는 반면 25세 이하의 농촌 청소년은 가업계승(39.1%)과 직업전망(26.1%)이 높았다. 기혼인 청소년은 가업계승(42.5%)과 적성을 고려하여(30.0%) 직업선택을 하였으나 미혼인 청소년은 가업계승(37.7%)과 자연친화적 삶(27.3%)이 많았다. 고졸 학력과 초대졸 학력 농촌 청소년은 가업계승이 높았으나 대졸 학력 청소년은 자연친화적 삶(31.8%)을 위해 직업선택을 하였다. 경제수준이 상위층 농촌 청소년은 가업계승(40.0%)과 자연친화적 삶(25.0%)이 높았으며 하위층 청소년은 자연친화적 삶(33.3%)의 비율이 많았다. 작물재배 농촌 청소년은 가업계승(33.3%)과

자연친화적 삶(28.1%)이 높았으며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청소년은 가업계승(44.1%)과 직업전망(25.4%)이 많았다.

농촌 청소년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한 시기는 <표 4>와 같이 중고교 재학시절이나 군복무 이후가 많았다. 이것은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후 농업에 종사중인 농업인을 연구한 정성봉·송해균(198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26세 이상의 청소년은 군복무 후(42.0%)와 중고교 재학시절(41.0%)인 반면 25세 이하의 청소년은 중고교 재학이 53.8%로 가장 많았다. 결혼유무에 있어 미혼인 청소년이 중고교 재학시절에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기혼 청소년은 군복무 후(50.0%)로 직업선택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상위층과 중간층인 청소년의 농업선택은 중고교 재학시절이 47.0%로 가장 많은 반면 하위층 청소년은 군복무 이후가 44.4%로 많았다. 영농규모가 중농이

<표 4>

농촌 청소년의 직업으로서 농업선택의 시기

	구 분	중고교 재학시절	대학 재학중	군복무 후	전 체
연 령	26세 이상	41.0	17.0	42.0	100.0(100)
	25세 이하	53.8	29.0	17.2	100.0(93)
결혼유무	미혼	50.0	24.7	25.3	100.0(154)
	기혼	32.5	17.5	50.0	100.0(40)
학 력	고졸	62.7	1.5	35.8	100.0(67)
	초대졸	36.9	40.5	22.6	100.0(84)
	대졸	40.9	22.7	36.4	100.0(44)
경제수준	상위	47.5	30.0	22.5	100.0(40)
	중위	47.4	21.9	30.7	100.0(137)
	하위	38.9	16.7	44.4	100.0(18)
영농규모	중농 이상	47.0	25.8	27.3	100.0(132)
	소농	45.9	16.4	37.7	100.0(61)
영농기간	3년까지	47.2	30.6	22.2	100.0(72)
	6년까지	47.9	20.5	31.5	100.0(73)
	7년 이상	44.4	13.3	42.2	100.0(45)
주요작물	작물	45.5	16.9	37.7	100.0(77)
	과원채	46.6	24.1	29.3	100.0(58)
	축산	47.5	30.5	22.0	100.0(59)

상인 청소년들은 중고교 재학(47.0%)와 대학 재학중(25.8%)로 농업선택이 많았으나 소농의 청소년은 중고교 재학(45.9%)과 군복무 후(37.7%)로 나타났다.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농촌 청소년은 중고교 재학(47.5%)과 대학 재학중(30.5%)로 나타난 반면 작물을 재배하는 청소년은 중고교 재학(45.5%)과 군복무 후(37.7%)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직업으로서 농업선택에 있어 경제수준이 높으며 학력이 높은 농촌 청소년들이 직업선택이 일찍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5>와 같이 농촌 청소년의 농업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대부분 부모나 형제들이었다. 초대졸 학력 청소년의 직업선택에 있어 80% 이상이 부모나 형제인 반면 대졸인 청소년은 부모나 형제의 영향이 61.4%로 다소 낮았으며 주위어른이나 교사(22.7%)와 친구나 선배(15.9%)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상위층에 비해

하위층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에 대한 비율이 낮았으며, 부모나 형제가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 중농이상의 청소년들보다 소농의 청소년들이 낮게 나타났다.

농촌 청소년이 농업선택을 결정함에 있어 26세 이상 청소년집단의 부모에 비해 25세 이하의 부모들의 찬성이 25%가량 높게 나타났다(<표 6>). 학력에 있어 고졸 청소년(64.2%)나 대졸 청소년(63.6%)에 비해 초대졸 청소년의 부모들은 81.2%가 찬성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제수준이 상위인 청소년의 부모는 82.5%로 찬성한 반면 하위층 청소년 부모들은 50%만이 찬성하였다. 중농이상의 청소년의 부모는 농업선택에 80%에 달하는 찬성을 보인 반면 소농규모의 청소년 부모들은 단지 55.7%만이 찬성하고 있었다.

<표 5> 농촌 청소년의 농업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구 분	부모/형제	주위어른/교사	친구/선배	전 체
연 령	26세 이상	70.7	20.2	9.1	100.0(99)
	25세 이하	79.3	14.1	6.5	100.0(92)
결혼유무	미혼	73.7	17.8	8.6	100.0(152)
	기혼	80.0	15.0	5.0	100.0(40)
학 력	고졸	75.8	16.7	7.6	100.0(66)
	초대졸	81.9	14.5	3.6	100.0(83)
	대졸	61.4	22.7	15.9	100.0(44)
경제수준	상위	77.5	20.0	2.5	100.0(40)
	중위	75.6	15.6	8.9	100.0(135)
	하위	66.7	22.2	11.1	100.0(18)
규 모	중농이상	77.1	14.5	8.4	100.0(131)
	소농	70.0	23.3	6.7	100.0(60)
영농기간	3년까지	77.8	13.9	8.3	100.0(72)
	6년까지	73.2	18.3	8.5	100.0(71)
	7년이상	75.6	20.0	4.4	100.0(45)
주요작물	작물	72.4	21.1	6.6	100.0(76)
	과원채	75.4	15.8	8.8	100.0(57)
	축산	78.0	13.6	8.5	100.0(59)

〈표 6〉 농촌 청소년의 농업선택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

	구 분	찬 성	반 대	전 체
연 령	26세 이상	60.0	40.0	100.0(100)
	25세 이하	84.9	15.1	100.0(93)
결혼유무	미혼	71.0	29.0	100.0(155)
	기혼	72.5	27.5	100.0(40)
학 력	고졸	64.2	35.8	100.0(67)
	초대졸	81.2	18.8	100.0(85)
	대졸	63.6	36.4	100.0(44)
경제수준	상위	82.5	17.5	100.0(40)
	중위	71.0	29.0	100.0(138)
	하위	50.0	50.0	100.0(18)
영농규모	중농 이상	78.9	21.1	100.0(133)
	소농	55.7	44.3	100.0(61)
영농기간	3년까지	76.7	23.3	100.0(73)
	6년까지	69.9	30.1	100.0(73)
	7년 이상	66.7	33.3	100.0(45)
주요작물	작물	70.5	29.5	100.0(78)
	과원채	63.8	36.2	100.0(58)
	축산	81.4	18.6	100.0(59)

〈표 7〉 농촌 청소년의 자율적 직업결정 차이분석

	구 分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 / F	비고 ① ② ③
연 령	26세 이상	98	11.44	1.5868	-1.62	
	25세 이하	91	11.85	1.8890	ns	
결 혼	미혼	153	11.60	1.8290	- .352	
	결혼	39	11.71	1.3562	ns	
규 모	중농이상	130	11.66	1.6685	.263	
	소농	61	11.59	1.9007	ns	
학 력	고졸	65	11.32	1.6873		① ② ③ * *
	전문대	84	11.58	1.8050	3.313**	
	대졸	43	12.18	1.5925		
경 제 수 준	상위	38	12.26	1.6714		① ② ③
	중위	136	11.44	1.6231	3.336*	
	하위	18	11.66	2.4254		
작 물	작물	76	11.78	1.8353		
	과원채	58	11.75	1.5707	1.573	
	축산	58	11.29	1.7573	ns	
학 교 성 적	상위	61	12.13	1.7557		① ② *
	중위	107	11.42	1.7272	3.923**	
	하위	24	11.25	1.5393		③ *

*: p<.1 **: p<.05 ***: p<.001

3. 농촌 청소년 직업의사 결정귀인

1) 농촌 청소년의 자율적 직업 결정

농촌 청소년의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다른 사람의 영향보다는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는 자율적 결정의 집단간 차이는 〈표 7〉과 같았다. 대

졸인 청소년의 자율적 직업결정의 평균은 12.19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출 청소년은 11.5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LSD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과 전문대 및 고졸과 대졸 학력 청소년의 집단간 차이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높은 농촌 청소년의 자율적 직업결정의 평균은 12.26으로 가장 높은 반면 하위층의 청소년은 11.45로 차이를 보였다. 학교성적에 있어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농촌 청소년의 자율적 직업결정의 평균이 12.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위권의 청소년의 평균 11.43, 하위권은 11.25로 가장 낮았다. LSD에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과 중위권, 상위권과 하위권에 속하는 청소년집단 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2) 농촌 청소년의 타율적 직업 결정

〈표 8〉과 같이 농촌 청소년의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타율적 직업결정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인 청소년의 타율적 직업결정의 평균은 4.95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출 청소년의 평균

4.81, 대졸 학력 청소년은 4.25순으로 나타났다. LSD 사후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고졸과 대졸 및 전문대출과 대졸의 청소년집단 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성적에 있어 성적인 하위권인 청소년의 타율적 직업결정의 평균은 5.50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위권은 4.56순이었다. LSD에 의한 검증결과 상위권과 하위권 및 중위권과 하위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 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거나 학교성적이 낮은 농촌청소년의 타율적 직업의사 결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3) 농촌 청소년의 유동적 직업 결정

농촌 청소년의 직업결정에 있어 유동적 직업 결정의 집단간 차이는 다음의 〈표 9〉와 같았다. 학력에 따른 유동적 직업결정의 차이를 보면, 고졸이하의 청소년의 유동적 직업결정의 평균은 9.33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인 청소년의 평균은 8.60, 전문대출의 청소년은 8.55순으로 나타났다. LSD 사후 검증결과 유동적 직업결정

〈표 8〉

농촌 청소년의 타율적 직업결정 차이분석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 / F	비교 ① ② ③
연 령	26세 이상	98	4.6082	1.2295	-1.237 ns	
	25세 이하	91	4.8876	1.8181		
결 혼	미혼	153	4.7351	1.5946	-.100 ns	
	결혼	39	4.7632	1.3035		
규 모	중농이상	130	4.7578	1.5046	.239 ns	
	소농	61	4.7000	1.6292		
학 력	고졸	65	4.9538	1.5148	2.799* 	① ② ③ * *
	전문대	84	4.8095	1.6093		
	대졸	43	4.2500	1.3349		
경제수준	상위	38	4.7368	1.4646	1.827 ns	
	중위	136	4.6541	1.4515		
	하위	18	5.3889	2.1458		
작 물	작물	76	4.5811	1.4430	1.138 ns	
	과원채	58	4.9828	1.7720		
	축산	58	4.7018	1.3883		
학교성적	상위	61	4.7500	1.6326	3.745** 	① ② ③ * *
	중위	107	4.5619	1.4866		
	하위	24	5.5000	1.3188		

*: p<.1 **: p<.05 ***: p<.001

〈표 9〉

농촌 청소년의 유동적 직업결정 차이분석

	구 분	빈 도	평 균	표준편차	t / F	비고 ① ② ③
연 령	26세 이상	98	9.1443	2.1698	2.077**	
	25세 이하	91	8.4505	2.4095		
결 혼	미혼	153	8.8105	2.3276	-.142	
	결혼	39	8.8684	2.2321		
규 모	중농 이상	130	8.9147	2.4013	.722	
	소농	61	8.6557	2.0967		
학 력	고졸	65	9.3333	1.9344	2.357*	① ② * ③
	전문대	84	8.5529	2.4177		
	대졸	43	8.6047	2.4894		
경제수준	상위	38	7.8718	2.2382	4.439***	① ② * ③ *
	중위	136	8.9925	2.2892		
	하위	18	9.6111	2.0332		
작 물	작물	76	8.8289	2.3517	3.766**	① ② ③ *
	과원채	58	9.4035	2.1117		
	축산	58	8.2414	2.3118		
학업성적	상위권	61	8.3065	2.3371	2.359*	① ② * ③
	중위권	107	9.0476	2.3221		
	하위권	24	9.1667	1.9708		

*: p<.1 **: p<.05 ***: p<.001

의 차이는 고졸과 전문대졸 학력의 청소년집단 간의 차이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하위에 속하는 청소년이 9.61로 가장 높은 반면 상위에 속하는 청소년은 7.87로 가장 높았다. 25세 이하의 청소년의 유동적 직업결정의 평균은 9.14로 26세 이상인 청소년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거나 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안정적이지 못하고 유동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대 초반보다 영농종사기간이 길었던 20대 중반이후의 청소년들이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요작물에 있어 과수/채소/화훼를 재배하는 청소년의 유동적 직업결정의 평균은 9.40으로 가장 높았고 작물을 재배하는 농촌 청소년의 평균인 8.83보다 높았다.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유동적 결정은 직업선택과 종사의 불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동적 직업결정이 높은 청소년들의 농업종사와 농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20대의 농촌 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통해 밝혀진 주요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과 향후 농촌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째, 농촌 청소년의 직업으로서 농업선택의 결정은 가업계승이 가장 많았으며 적성고려와 직업전망으로 나타났다. 기혼인 청소년들은 가업계승이 높았으며 고졸학력의 청소년은 가업계승이 높은 반면 대졸이상의 청소년은 자연친화적 삶의 추구가 많았다. 경제수준에 있어 상위층에 속하는 농촌 청소년들은 가업계승이 많았으며 하위수준과 소농규모의 청소년은 자연친화적 삶에 대한 추구가 많았다. 농업에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청소년은 가업계승과 자연친화적 삶의 추구가 많은 반면 축산에 종사하는

청소년 가업계승이 많았다. 결혼을 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위층이나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농촌 청소년들이 가업계승을 위해 농업분야를 선택하고 있는 반면 소농규모이거나 대졸 학력의 청소년들은 자연친화적 삶의 추구를 위해 직업선택을 하고 있었다.

둘째, 농촌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시기는 중고교 재학시절이나 군복무 이후가 많았다. 25세 이하이거나 고졸학력이나 중농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후기 청소년은 중고교 재학시절에 농업선택을 결정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일찍 결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촌 청소년의 직업으로서 농업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모 및 형제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직업선택에서 자신이외의 부모의 영향을 밝힌 정성봉·송해균(198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농촌 청소년의 직업결정에 있어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농촌 청소년의 농업종사 결정에 있어 부모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었는데, 경제수준이 안정적이며 상위층인 축산분야나 중농이상의 부모들은 후기 청소년들의 농업선택에 보다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농촌 청소년의 직업의사 결정은 자율적 직업결정, 타율적 직업결정, 유동적 직업결정 등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농촌 청소년들은 학력, 경제수준, 학교성적 등에 따라 자율적 직업결정과 타율적 직업결정에 따른 차이분석에 있어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이 높은 집단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학교성적이 우수한 집단이 직업의사 결정의 자율적 귀인이 높았다. 그러나 학력이 낮은 집단이거나 학교성적이 낮은 집단은 타율적 귀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학력이 높거나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수준이 높은 농촌 청소년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높으며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정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촌 청소년의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변화나 불안정함을 엿볼 수 있는 유동적 귀인은 20대 중반 이후,

저학력집단, 낮은 경제수준, 채소/화훼/과수분야 가,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에 속하는 농촌 청소년들이 각각의 유형에서 다른 집단과의 비교에 있어 높게 나타났다. 농촌 청소년의 직업의사 결정에 있어 유동적 귀인이 높은 청소년들은 농업으로의 직업선택과 종사에 있어 계획적인 갈등과 방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적 귀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농촌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직업선택과 농업종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농촌 청소년의 직업으로서 농업선택의 이유, 시기 및 직업의사 결정귀인은 자율적 귀인, 타율적 귀인 및 유동적 귀인에 있어 집단간의 다양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집단의 차이와 특징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급격한 농촌의 변화 속에서 농촌 청소년들의 직업발달과 관련하여 농촌 청소년들의 직업의사 결정이 향후의 농업분야의 직업 활동이나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나 농촌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이해나 직업선택과정을 밝히는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참 고 문 헌

1. 고향자, 1992, “직업의사결정모형의 문현적 고찰”, 인간이해 13:3-19.
2. 공병문, 김형선, 김후, 1985, “농촌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농고생의 의식조사”, 원광대 행정논총 5:45-164.
3. 김지순, 2000,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직업의사결정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5:88-106.
4. 김향숙, 2003, 영농후계자의 영농의식 동향에 관한 연구, 공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류창열, 1990, “발달이론에 나타난 청소년이 발달단계와 진로발달과업”, 충남대학교 공

- 업교육연구소 논문집, 13(1):15-22.
6. 서우석, 2002,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지도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1):173-191.
7. 송소원, 2001,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학생생활연구, 14:1-23.
8. 정성봉, 송해균, 1989,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 자영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2), 63-74.
9. 유창열, 1984, 영농정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4(1), 49-54.
10. 이용환 서우석(1995).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의사 결정과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7(1), 23-32.
11. 이정근, 1988, 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서울적성연구소
12. 임두순, 1996, 진로교육에서 의사결정이론 모형고찰. 진로교육연구, 6:11-140.
13. 조완규, 송해균, 이용환, 1984,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과학생의 진로결정”,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6(1), 1-5.
14. 최민호, 1981, 사회교육을 통한 영농후계자 육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3(2), 92-111
15. 최민호·김성수, 1993, 농촌지도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6. 최승희·이무근, 1986, 영농형태에 따른 영농의식 및 기술혁신 수용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8(1), 67-78.
17. 최원개, 1986, “농업전문대학에서의 영농후계자 및 농민교육 활성화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 18(4), 105-111.
18. Bailey, L. J., and Ronald W. S, 1973, Career education: New approach to human development, Illinois: McKnight career publication.
19. Blau, G. J., 2001, “On assess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two multidimensional constructs occupational commitment and occupational entrench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1:278-298.
20. Blau, G. J., 1989, “Testing the generalizability of a career commitment measure and its impact on employee turnov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35:88-103.
21. Landy, F. J., and Gvion, R. M., 1970, “Development of scales for the measurement of work motivation”,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Performance, 5:93-103.
22. Hackett, R. D., Lapierre, L. M., and Hausdorf, P. A., 2001, “Understanding the links between work commitment construc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58:392-413.
23. Jepsen, D. A., and Dilley, J. S., 1974, “Vocational decision making module; A review and comparative analysi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4:331-349.
24. Jasper S. L., 1972, Occupational guidance and career development in the school, Boston: Boughton Mifflin.
25. Katz M. R., 1966, “A model of guidance of career decision making”,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5:2-10.
26. Luzzo, D. A., and Smith, A. J., 1998,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assessment of attribution for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52:224-245.
27. Sinho, R., and Greenhaus, J. H., 2004, “The 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trategies and person-job fit; A study of job change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64:198-221.

(2005년 10월 14일 접수, 심사 후 수정 보완)